

출판계 움직임

마진율 공방 25%로 타결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판·서적상계의 핫이슈로 부각되며 두 업계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학습참고서 마진율공방이 일단락됐다.

참고서출판업자들의 모임인 학습자료협회(회장 임홍조)와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회장 김석용)는 최근 협상을 갖고 현재 20%인 학습참고서 마진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합의, 11일 출고분부터 이 마진율을 적용기로 했다.

서적상들의 마진율 인상요구는 지난해의 지방서점 집단휴·폐업 사태 이후 꾸준히 거론돼 오던 것이었는데 서련측이 이를 올해 숙원사업으로 제기, "최소한 30% 마진율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에는 출판문화협회 앞에서 성토대회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꺼번에 10% 포인트나 인상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출판사측의 입장과 맞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다가, 이번엔 25% 선을 수용하기로 전격합의하게 된 것.

한편, 이번의 마진율공방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학습자료협회가 그동안 출판·교육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던 '채택료'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해 관심을 끌었다. 채택료근절은 그동안 전교조 등 교사단체들이 여러차례 거론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된 출판협회 제44차 정기총회.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출판협회 제44차 정기총회서 ... 회관이전위원회 구성도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 제44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 총 1,019개 회원사 중 249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권병일 회장의 개회사

에 이어 총회의사록 서명인·서기·감찰 선임, 제43차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 1990년도 사업보고 승인, 감사보고 등의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참석한 회원사들은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치 결산보고를 승인하는 한편, 총 7억4천70만

원 규모의 9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회사에서 권회장은 "올해의 주요사업목표 및 주안점은 작년에 부활된 서울도서전, 회관관리, ISBN·POS제도 도입, 한국문화기본도서 발행사업, 국제도서전 참가,

못했는데 이번에는 관련 출판사 대표들이 모여 채택료를 주지 않는 대신 광고를 하겠다고 합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잡지협회 새 회장에 金秀達씨

지난달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잡지협회 정기총회서 金秀達씨(월간 「로드쇼」 발행인)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임 이종균회장에 이어 제29대 회장에 선출된 김수달씨는 취임사를

통해 한국잡지의 국제화를 비롯, 저작권분쟁의 해결, 잡지금고의 기금확충과 내실화, 잡지유통기구 설립 등의 청사진을 펼쳐보였는데, 성인잡지의 가능성을 점치기도 해 주목을 끌었다.

'효사상' 관련 고문헌 전시회

효사상과 관련된 고문헌을 한자리에 모은 '효도사상 문헌전시회'가 지난달 26일부터 2월25일까지 서울 신문로 한국출판무역(주) 전시

실에서 열린다. 한국에서가톨릭과 한국고서협회 후원으로 한국출판무역이 개최하는 이 전시회에는 고려시대부터 한말까지의 관련도서 164종이 출품됐는데, 「明心寶鑑」 국내 초간본을 비롯해 「효경」 「부모은중경」 「삼강행실도」 등의 자료들을 선보이고 있다.

'주식회사 서울출판유통' 발기

한국출판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로 꼽히는 출판유

해외동포에게 사랑의 책 보내기 사업"이라고 밝혔으며, 신규사업으로 ▲전자출판연구위원회 구성 ▲도서상품권 발행사 설립추진 ▲서울 IF-RRO(세계복제권기구연맹) 세미나 ▲한국어린이도서상·한국과학기술도서상 기금 확충 모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산출판단지 건설지원 및 우루과이 라운드·지자체 등으로 인한 제작여건 악화에 적극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허창성씨(평화출판사 대표)는 "전자출판의 출판법 삽입"을 요망했는데, 이에 대해 권회장은 "구성예정인 전자출판위원회에서 수렴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CD나 비디오 등을 책의 부속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제본계를 비롯한 유관업체에 공로패를 전달하자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고, 통신판매제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도서우편물 할인을 위한 체신부와의 협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관심을 모았던 도서상품권(주)출자의 건은 출협이 1천만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으며, 3월경에는 회관이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날 총회는 마감됐다.

통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센터 '주식회사 서울출판유통'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6월경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이 유통센터는 참고서와 잡지를 제외한 단행본 위주의 총판형 도매기구로서 기존의 서적도매상들과 몇몇 출판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되는데, 책의 보관과 운송, 대금회수 등 유통의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담당할 계획이다.

각종 지류(紙類) 도매 소매

高麗紙業社

● 서적지 ● 모조지 ● 아트지 ● 엠보싱지 ● 레자크지

고려지업사는 단행본 출간에 필요한 모든 종이를 다량 확보하여 소량의 종이도 최선을 다해 보급해 드리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제지회사로부터 감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대중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적출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수표동 47-6 전수빌딩 807호 전화 271-2581, 2 팩시밀리 269-8890

圖書出版企劃執筆

- 한·중출판정보학회
- 한·중번역저술학회
- 현대중국학술정보센터

代表: 黃秉國

서울 양천구 목동 APT 10단지 31동 앞
TEL: 645-7052

「출판저널」 보관용 바인더 실비제작 배포합니다.

「출판저널」의 판형이 특수하여 보관하기가 까다롭다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년치(24호분)를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개당 제작실비 2,500원과 등기우송료 1,500원, 합계 4,000원을 우편소액환으로 주문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사로 오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